

상록탑

# 통일에 반대하는 당신이 알았으면

실로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났다. 최초로 북한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며, 최초로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언론을 장식한 각종 화려한 '최초'라는 수식어가 마음에 들었다.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는 기분이었다.



김동진  
편집부국장

## “ 젊은 세대, 통일관념 재정립할 때 ”

그래서 이대학보 5월 발행이 시작하자마자 관련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흥미롭고 감동적인 드라마를 지면에 남기면 그것대로 뜻 깊을 것 같아서였다. 통일학 연구원장 김석향 교수님을 만났고, 교수님을 통해 학내 탈북 학생과 인터뷰를 할 기회도 얻게 됐다. 들뜬 마음에 친구들과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다.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20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할 법한 뻔한 이야기들이었다. 누군가는 통일이 되면 세금을 많이 내서 싫다고 했다. 누군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으면 하라고 했다. 물론 모두가 통일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누군가는 통일이 지긋지긋한 취업난이 끝날 거라 짐 튀기며 주장했다. 육로로 유럽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믿겨지니며 들뜬 필자

그러나 취재를 진행할수록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였겠다. 그 어떤 세대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공감능력까지 갖춘 20대다. 이들이 어떻게 분단선 너머 사람들 삶에는 그토록 무감각할 수 있을까. 교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온 몸을 관통했다. 내 안의 새빨간 이기심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분단선 너머의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살고 통일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 고작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일의 이점으로 꼽고 세금 때

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것. 그러한 이유로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은 평생 누리지 못할 안정된 삶의 특권이였다. 고통 받는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만이자 같은 인간으로서 도덕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시기가 온 듯하다. 우리는 오직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북한과 비교 불가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다. 안정된 삶의 특권을 누리왔으니 조금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운 나쁘게 분단선 너머 태어난 사람들에게 통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남북 관계도 술술 풀리고 있는 지금, 남한 청년들이 화해 분위기를 즐기고 각종 유머로 소비할 동안 북한이탈 학생들은 어쩌면 내 가족이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던 한 곳 운발의 차이를 당신이 느끼길 바라며 이대학보와 인터뷰한 본교 탈북 학생의 말을 옮겨본다.

“저는 남한 대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태어났더라면 통일에 반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칼럼

#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제 대학시절의 단짝은 불안감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금 빨리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었습니다. 25년간 그 누구도 저에게 “천천히 해”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고, 취업이 아니면 대학원, 고시 준비 등 얼른 빨리 자신의 길을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정단비  
국문·14

## “ 우리, 조금만 느긋하게 가봅시다 ”

대학생이 된 자유를 채 누리기도 전에, 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는 무언가의 중용 속에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여러 전공도 들어보고, 마음이 맞는 동아리도 해보고, 계절교환도 다녀오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지만, 이따금 “이제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는 단짝’과 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잇, 내 단짝이 싫어할 짓을 해서 저 친구와 멀어지자! 천천히 살아보자” 맨날 후배들에게만 해주던 조언을 스스로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효율적인 행위’에 대한 압박감은 심해졌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피로를 느꼈습니다. 운동이나 제2외국어를 배워 보기도 하고, 12kg 배낭을 메고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기도 했지만 아무리 말버둥을 쳐도 나를 찾는 이 ‘불안함’이라

사실 어쩌면 너무 경험이 없는 자의 ‘순진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이화 밖에서는 시베리아 별판보다 냉랭하게 얼어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이런 감성적인 말은 ‘큰대’같은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년간 이화를 경험했기에 오히려 이화에는 이런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집합인 이곳 이화에서는 나만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빨리 달리라는 체책을 휘두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라도 그 체적으로 얻어맞은 자리에 조금이나마 따스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인 세계화는 우리를 무한경쟁 속에 내몰고, 가족 간의 관계는 악화되지만 부양할 사람을 늘어난 세대입니다. 이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벗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한 걸음씩 나아가봅시다. 우리.

여론광장

#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컴퓨터 공학과입학 3년차. 그동안 나는 게임 개발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올해는 부회장이 되어 동아리 일을 관리하게 됐다. 저 말은 지난 2년을 지내며 선배에게 많이 듣고, 후배들에게 많이 하게 된 말이다. 사실 특별한 말은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인사말이다. 의미는 말 그대로다. 저는 당신이 건강상태를 잘 관리하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끼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주변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학점과 스펙을 쌓으며 자기관리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또한, 가장 무력감을 느낀 것도 이 지점이었다. 위에서 말한 ‘살아있는 것조차 힘든’ 한 사람으로서, 내게는 불가능한 일을 투성이었다. 어떻게 약을 먹지 않고 버티지?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않고 살아가지?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해냈다. 전부 대단한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던 중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말을 이렇게나 쉽게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신체와 정신을 잘 관리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식단, 인간관계, 스케줄의 강도,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순순간에 영망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숨쉬듯 자연스럽겠지만, 살아있는 것조차 힘든 누군가에게는 자기관리까지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과 힘들지만 잘 견디라는 말은 다르다. 전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지만, 후자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꼭 나만큼, 혹은 나처럼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힘들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래서 저 말을 들은 후부터 나는 주변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아주 천천히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다. 공부하는 커녕 나 자신을 건디는 데도 지쳐있었다. 지금도 상태는 비슷하다. 여전히 약을 먹고, 글을 읽지 못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분명 전과는 다르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약의 힘을 빌린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나는 짜증을 줄이고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병원 진료와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충분히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행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짜증을 줄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덜 신경쓰려 하거나.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송승은(컴공·16)**

사설

# 대학생 정신건강 적신호, 대응책 필요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취업난과 과열된 경쟁 속 수많은 대학생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3일 개최한 국회세미나 중 본교 오혜영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2607명을 대상으로 올 초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4%가 불안, 43.2%가 우울, 14.3%가 자살위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정신건강 실태가 심각했다.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전문적 상담 등의 예방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대학 사회에선 전일 상담 인력이나 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본교는 타대에 비해 상담원 수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잘 돼 있는 편이지만, 학생들의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아쉬운 상황이다.

본교 상황이 비슷하다. 이화미디어센터가 3월 중 학부생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이 경증 우울 증상을 보였다. 학생상담센터가 매년 진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에서도 ‘살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 25.4%에서 2017년 46%로 5년 새 급격히 늘었다.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 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해줄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문제를 겪는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대학생의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투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앞서 언급한 세미나에서도 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등은 “대학생 정신건강에 국가적 수준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실제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해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꾀하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본지가 지난 해외취재 기획에서 다뤘듯이, 미국 대학에서처럼 학생 주도의 상담 동아리, 프로그램 등 또래상담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속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일상에서



금주의 책

**논어는 처음이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논어 읽기**  
- 로진 지음, 서울: 세종서적, 2017.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을 담고 있는 논어는 누구나 훌륭한 고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리타분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선택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에 저자는 자신이 논어를 읽고 깨달은 삶의 이치와 지혜를 쉽게 풀어 논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자는 먼저 학이부터 요말까지 총 20편으로 구성된 논어의 원문과 독음을 꼼꼼하게 해석합니다. 이어 공자와 제자들을 인간적이고 친근한 인물로 표현한 저자만의 해설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논어를 전합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溫故而知新)’는 공자의 말처럼 고전인 논어 속 지혜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삶의 길을 찾길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181.2183 명325-]

0404~0503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정령왕) 엘리네스: 이화 판타지 장편소설 / 개정판	이환	드림북스: 삼양출판사	2011
2	서울대 한국어 [개정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투판즈	2012
3	1Q84 :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2009~2010
4	경성탐정사무소: 박하민 장편소설	박하민	로담	2016~2017
5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Dewey, Melvil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2011
6	달을 사랑한 괴물: 김지우 장편소설	김지우	파피루스: 디앤씨미디어	2013
7	신과 함께: 신화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에니북스	2017
8	악마라고 불려다오: 안테 장편소설	안테	D&C Books: 디앤씨미디어	2015
9	미술과 성서	정은진	예경	2013
10	(최신) 경영학의 이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영학 입문서 / 3판	김성국	비엔엠북스	2018